



나비 공주



글 별아래, 그림 지현경 / 책고래

손끝으로 피워 내는 꽃, 채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

《나비 공주》는 조선 시대, 채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궁중채화장의 아들 도래가 정소 공주와 만나 채화를 꽃 피우기까지, 그리고 어엿한 장인으로 성장하기까지의 여정을 담았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빠르게 변해 갑니다. 민첩하고 영리하게 처신하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여겨지지요. 사람들은 ‘일등’, ‘성공’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부단히 지름길을 찾고 재빨리 경로를 바꾸어요. 어른들만큼이나 아이들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에 한 길을 우직하게 걷는 채화 장인들의 모습은 어쩌면 답답해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무언가를 꾸준히 노력하여 끝내 이루어 내는 것은 여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나비 공주》속 이야기는 우리의 전통과 그 안에 깃든 정신에 대해 돌아보게 합니다. 아이들이 《나비 공주》를 통해 옛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되기를, 또 새로운 눈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독후활동 시작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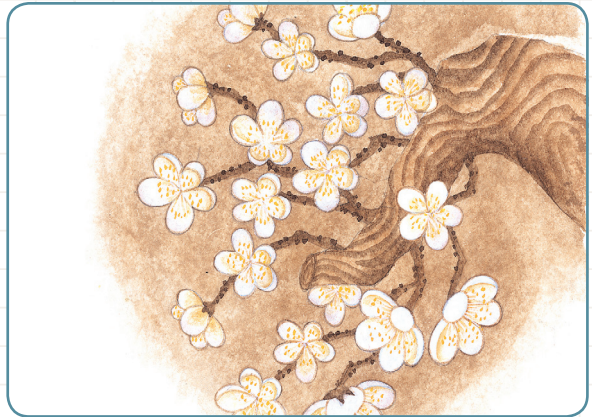
📍 등장인물과 연상되는 꽃을 책에서 찾아 그려보세요. 그 이유도 적어보세요.



주제 활동

㉠ 다음을 읽고, 채화를 피우려면 장인의 손에서 혼이 담긴 정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자

“매화는 저마다 피는 모양이 다릅니다. 어린 꽃망울부터 막 피기 시작한 매화, 영글게 꽃잎을 벌린 녀석, 시들어 가는 꽃까지 다양하지요. 가짜 꽃이라도 생화처럼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 다음을 읽고, 각각의 입장이 되어서 근거를 들어 말해 보세요.

도 래 : 왜 사치스러운 꽃을 이리 고달프게 만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채화는 임금님 한 사람을 위한 꽃이잖아요!

힘들게 만든 채화를 팔지도 먹지도 못하는 처지가 답답합니다.

아버지 : 이해가 안 가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 나도 그러했으니까.

허나 버겁더라도 감내해야만 한다. 대대로 이어 온 우리 가문의 숙명이니라.

도 래 :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저는 박힌 돌처럼, 한곳에 묶인 나무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요!

아버지 : 고작 일 년도 못 기다리겠다는 게야?

정녕 대대로 이어온 조상님의 가르침이 아깝지도 않더냐?

도래의 의견에 찬성한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의견에 찬성한다. 왜냐하면,
